

기고



주석중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
(전 전남대 교수)

광주시장 선거 '원팀 경선' 을 촉구한다

치열한 예비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과 실망, 그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 조기 과열 후유증 우려

또 광주시장과 총남지사 선거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조기과열된 선거분위기'에 대한 당 안팎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당의 입지자들은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인지도 높이기와 세몰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고



김조일
광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에게는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급하게 한다. 옆에서는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를 재빨리 달려 달라고 두 손을 모은 채 울먹이고 있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제천과 같은 대형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 각각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환경이나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출동벨이 울린다. 소방차에 올라 출동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는 동안 현장에 도착한다. 가족이 물놀이를 왔다가 아빠가 물에 빠진 상황, 아빠를 재빨리 건져 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입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꺼내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금만 주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정작 사고를 당하고선 후회를 한다. 셋째, 사람을 구하려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이나 폭언·폭행을 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 줘야 한다.

독자투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새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를 목표로 선정,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람 중심 교통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김상철
구례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그간 우리사회는 차량우선 교통문화가 형성돼 사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환경으로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3.8명으로 OECD평균(1.2명)의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정차 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행자 우선 정책을 추진해 도심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안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교통무질서로 인한 교통사고 등 교통위해요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패막이 형성된 셈이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하고 구역 내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잘 마련된 제도를 활용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동참과 인식변화가 전제됐을 때, 선진 교통문화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지름길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사진 속 세상

책상밑으로 신속히



19일 오전 부산 북구 금곡동 금창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에 대비해 방재모자를 쓰고 책상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독자광장

봄철 자전거 절도 주의하자

자전거타기 좋은 봄날이지만 그만큼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이 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가격이 몇 백만 원대를 호가하자 이를 노리는 절도범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자전거 안장만을 따로 빼내어 팔다가 걸려된 사례도 있다. 자전거 절도가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품 자체가 안장과 바퀴 등 따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훔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라도 일반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절단기를 이용할 경우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나와 잠시 밖에 두었을 경우 가까운 관공서나 파출소 같은 곳에 맡기는 것이 좋다.

사설

정치권 본격적인 개헌논의 동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지시했다. 개헌안 발의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가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개헌 로드맵을 발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6월 국회 합의'를 주장하고 있어 이마저 합의를 장담할 수 없다.

청와대측은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한국당이 자체 개헌로드맵을 발표하고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에 입장을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국당이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던 터라 진일보했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사회 개혁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두는 것이 옳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 청와

거듭 말하거나와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야당은 '관계 개헌'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합의의 개헌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 지속성이 관건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지원,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업 수준인 3,800만원으로 높아질 것이다.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한 청년 창업도 포함돼 있다. 이 모두가 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있는 터라 신뢰가 느껴진다.

정부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매우 과격적이다. 이를 요약해 보면 오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신규공용을 창출, 청년실업률을 8%선 아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지난달 현재 청년실업률은 9.8%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예산과 세제 등 전방위적인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핵심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 초봉을 대기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4월 국회에서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의 핵심은 예산 지원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찾아 나가야 마땅하다.

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발행·편집인: 최영기, 사무이사 겸 편집국장: 김태호, 논설실장: 정정호
대표전화: 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기사제보: 062)720-1050-56, 사회2부: 062)720-1043-44, 인쇄처: 다원 인쇄
FAX: 062)720-1080-82, 문체부: 062)720-1045, E-mail: jndn@chol.com
논설실: 062)720-1032, 전산팀: 062)720-1033
정치부: 062)720-1060-62, 사진부: 062)720-1040
경제부: 062)720-1065-67, 광고국: 062)720-1017
사회부: 062)720-1050-5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유머@세상

◇학교가기 싫어서
한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 내며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
"선생님이세요? 우리아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결석을 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전화하시는 분은 학생과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자 아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참새 교통사고
참새 한마리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마침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이 참새를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하고 모이를 준 뒤 새장안에 넣어줬다.
한참 뒤에 정신이 든 참새는 생각했다.
"아! 이런 젠장! 내가 오토바이 운전사를 치어서 죽인 모양이군. 그러니까 절창 안에 갇힌거지!"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job openings, legal aid, and emergency services.